“지역복지 활성화 불교가 주도”

(재)원광장학재단, 10년째 장학금 전달해

“제게 주어진 나머지 삶은 장애인과 어려운 학생, 이웃을 보살피는 일에 회향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원광장학재단(이사장 지광)은 3월 3일 원광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제11회 장학금 전달 법회를 봉행했다. (재)원광장학재단은 전달 법회에서 대학생 6명에게 각 200만원, 고등학생 11명에게 각 50만원 총 175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재)원광장학재단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장학생 218명을 선발해 총 1억6000만원을 수여했다.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원로의회 수석부의장 박원묵 스님, 부산교구 종무원장 자관 스님, 이헌승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이사장 지광 스님은 “앞으로 장학금 전달을 비롯해 지역복지를 위해 더욱 전문화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광 스님은 지난달 7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울타리 장애인 사회 기업’을 출범했다. 현재 장애인 70명을 고용했으며, 올해 6월까지 6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원광사 부지에 한방 암 전문병원을 오는 10월 착공해 지역민을 위한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대안학교 설립 및 장학금 조성 모금 사업을 기획 중이며 원광사에서 1999년부터 이어온 백미나눔도 지속할 방침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정진 다짐’한 전북불교 인재들

전북불교대학, 불교학 · 법사과 총 104명 입학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이 ‘제32기 불교학과 및 제27기 법사과 입학식’을 봉행했다.

3월 3일 전북불교대학 대법당에서 열린 입학식에는 불교학과 77명, 법사과 27명이 입학을 알렸다. 행사에는 이창구 학장을 비롯해 전주 정혜사 회주 지섭 스님, 곡성 통명사 주지 법중 스님, 김인석 전북불교대학 총동문회장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이창구 학장은 입학식사를 통해 “전북불교대학은 멀리 있으면 보고 싶고, 가까이 있어도 싫지 않은 이런 공간이었으면 한다”며 “마음엔 평화, 입가엔 미소가 가득한 학교생활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중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불교대학 학인들이 처음에는 배울 것이 얼마나 있을까 걱정하다가 연말이 되면 배울 것이 많은데 시간이 부족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처음부터 열심히 준비해 올 연말에는 많은 것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법정 스님 정신, 아직도 큰 울림”

맑고향기롭게 부산, 법정 스님 9주기 추모법회

“무소유의 맑은 삶은 지금도 법신이 되어 우리에게 가르침이 됩니다.”

법정 스님 열반 9주기를 맞아 추모법회가 봉행됐다. (사)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은 법정 스님 열반 9주기 추모법회를 3월 2일 맑고향기롭게 서면 사무국에서 봉행했다. 추모법회에는 경선 스님(범어사 주지), 흥교 스님(성주사 회주)을 비롯해 맑고향기롭게 운영위원, 자원봉사자와 조계종부산불자회, 부산불교지도자포럼 등 사부대중 230여 명이 동참했다.

흥교 스님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사부대중이 함께 뜻을 모아 이어가고, 특히 박수관 회장의 노력으로 맑고향기롭게가 더 발전할 수 있었다”며 “장학금 전달과 어르신을 위한 복지활동 등 사회 어두운 곳을 위해 노력한 공로가 크다”고 격려했다.

경선 스님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준다”며 “맑고 향기롭게를 통해 지금도 스님의 삶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민족투사 애국심, 불교가 계승”

부산 범어사, 금정中서 3.1운동 100주년 행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금정중학교에 태극기 물결이 가득 찼다.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함성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고 스님들은 묵념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가 3월 7일 부산 금정중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금정중학교는 일제강점기 당시 범어사 지방학림이었던 명정학교의 후신이다. 범어사는 명정학교 독립운동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범어사 명정학교를 중심으로 독립만세운동이 부산에서 최초로 일어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공식적인 부산 최초 독립만세운동으로 알려진 3월 11일 일신여학교(현 동래여고) 좌천동 거리보다 앞서는 기록으로, 당시 만세운동 장소는 동래장터였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은 부산 최초 독립만세운동과 독립운동의 중심이 됐던 명정학림을 알리고 순국열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개최됐다. 기념식은 명정학교 영상이 나오는 가운데 명종 33타로 시작됐으며 국민의례 및 헌다와 헌화가 이어졌다. 이어 범산 스님(범어사 부주지)이 국태민안과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발원문 낭송,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진혼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내빈들의 기념사와 추모사도 이어졌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금정중학교의 전신인 명정학교는 부산 독립운동이 최초로 시작된 곳이자 민족 투사들의 애국심이 모인 집결지였다”며 “내 조국을 위해 죽음을 불사한 호국정신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학림 명정학교 중심으로
부산 최초 만세운동 주도해
선열들 희생 다시 되새기며
독립운동가 추서 활동 다짐

박수관 범어사 신도회장은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우리 후손들은 독립국에서 자유롭게 산다”며 “끈질긴 집념과 투혼으로 나라를 사랑한 정신은 영원히 살아 숨쉰다”고 말했다.

기념식 후 현장에 참여한 범어사 3.1운동 유공자 유족들의 모임도 진행됐다.



부산 범어사가 금정중학교에서 개최한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대중이 태극기 물결을 이루고 있다.

100년 전 범어사 명정학교 독립운동 당시 옥살이를 한 유공자는 총 34명으로 집계됐으나 현재 유공자 중 훈격된 독립운동가는 15명이 전부다. 또한 유공자 유족 현황이 파악 안 돼 독립운동가 추서가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범어사는 “앞으로 정기적인 학술대회 및 기념식으로 중요성을 강조하고 독립유공자를 위한 활동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오우영(오긍상 독립운동가 자녀 · 범어사 3.1운동 유공자 모임) 회장은 “유공자로 서훈을 받은 분보다 못 받은 분들 더 많은 상황이다. 앞으로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유족 가운데 윤석문 씨는 대통령 표창 당시 받은 훈장을 금정중학교에 기증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애국활동을 널리 알려줄 것을 부탁했다.

범어사 명정학교는 1906년 6월 금어암에 사립 명정학교로 개교했으며 범어사 스님들을 비롯해 지역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했다.

이후 범어사 3.1만세운동은 명정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1919년 3월 7일 동래 장날 선언문을 배포하고 만세를 제창해 부산지역 만세 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부산 또는 대구형무소에서 모진 고문과 옥고를 치렀으며, 당시 일제는 3.1 만세운동을 빌미로 명정학교와 지방학림을 강제 폐교했다.

門 활짝 열린 통도사 염불대학원

1기 신입생 23명 등록
각종 의식 2년 본과과정

통도사가 염불대학원 입학식을 열고 첫 시작을 알렸다.

통도사(주지 영배)는 3월 6일 해장보각에서 입학식 및 개원식을 봉행했다. 이로써 통도사는 총림 구성요소인 선원, 율원, 강원 그리고 염불원까지 완벽하게 갖춘 종합수행도량이 됐다.



통도사는 3월 6일 해장보각에서 입학식 및 개원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수업이 진행될 설선당에서 거행한 현판식 모습.

개원식에는 방장 성파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 어산어장 인묵 스님, 주지 영배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특히 제1기로 입학한 비구 19명과 비구니 4명 등 23명의 신입생이 함께했다.

방장 성파 스님은 개원을 축하하며 “염불은 부처님을 염하는 수행으로 염불을 통해 성불할 수 있다”며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포교에 앞장 서달라”고 당부했다.

염불대학원 개원을 축하하며 현응 스님과 인묵 스님의 축사도 이어졌다. 현응 스님은 “영축총림은 기존의 선원, 율학승가대학원, 승가대학에 더해 염불대학원까지 구비하게 됐으니 조계종 종헌에 의한 총림 요소를 모두 완비한 곳이 됐다”며 “더욱 노력해 염불과 의식의 중요성을 알려 달라”고 말했다.

염불대학원장 영산 스님은 “법고창신의 자세로 더욱 노력하고 현대화와 더불어 전통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개원 축하법회 후 사부대중은 염불대학원 수업이 진행될 설선당에서 현판식을 거행했다. 한편, 염불대학원은 2년 본과과정을 운영한다. 본과과정은 상용의식, 재의식, 목탁과 법고 등 불전사물, 바라무와 나비무 등 작법 등으로 구성된다. 강의는 염불대학원장 영산 스님, 혜일 스님, 도경 스님, 중본 스님이 담당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고경 법전 대종사 73주기 추모 다례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3월 2일 경내 템플스테이 수련관 육화원에서 고경당 법전 스님 73주기 추모 다례재〈사진〉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 다례재는 동곡문도 문장 혜국 스님,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 은해사 관장 돈명 스님,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대구BBS불교방송 사장 법일 스님 등 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동곡문도 문장 혜국 스님은 “큰스님의 수행정신을 닮아 후학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수행자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 수행에 더욱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안국선원 수불큰스님의 선법을 전수 · 인가 받음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과학연구소(소장:처명)

전통범음범패
학 인 모 집

개강일 2019년 4월 3일 수요일
접수기간 상시모집
강의시간 매주 수요일 / 오후 2시 ~ 6시
수강료 1개월 10만원
제출서류 수강신청서 1부(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 사진 1매
강주스님 덕 안

교육과정
1 조석예불, 사시불공, 상용의식
2 49재 천도재 의식 전반(시련 ~ 봉송)
3 사물 다루는 법(목탁, 요령, 태징, 북)
4 바라무, 착복무, 법고무

• 요잡바라 • 천수바라 • 다게 작법
• 관욕바라 • 사다라니바라 • 운심게 작법
• 화의재바라 • 도량게 작법 • 긔경이 작법

접수 및 강의장소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47, 청하빌딩 4층
전화번호 051)558-5077

한국불교태고종 부산교구 종무원